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버건디 레드 컬러의 트리뷰트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2021년, 리베르소 탄생 90 주년을 맞이한 예거 르쿨트르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를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버건디 레드 다이얼과 핑크 골드 케이스로 출시된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 워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아르데코 시대의 정점인 1931년에 탄생한 리베르소는 당시 새롭게 유행을 선도했던 ‘스포츠 신사’ 중에서도 특히 폴로 선수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깔끔한 라인과 회전 가능한 케이스로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해당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워치 중 하나로서,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시 직후,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에게 호응을 얻은 리베르소는 새로운 버전들을 선보였습니다. 리베르소 탄생 1 주년이 되기도 전에 컬러 다이얼이 도입되어 케이스 메탈 소재와 생생한 대비를 이루었으며, 간결하고 대칭적인 디자인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초기의 컬러풀한 모델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이 리베르소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이어갑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

듀오페이스의 듀얼 타임존과 트리뷰트 컬렉션의 간결한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타임피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폴로 및 라이딩 부츠 제작사인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특별히 디자인 및 수작업으로 완성한 오리지널 스트랩이 장착되었습니다.

1994년 처음 개발된 듀오페이스는 핸드 와인딩 칼리버 854A/2가 탑재되어 각각 다른 시간대를 표시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다이얼로 구성되었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에 완벽하게 통합하기 위해, 세컨드



타임존은 상단 케이스 밴드에 세팅된 작은 슬라이더로 조정되며 케이스를 캐리지에서 분리하여 뒤집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캐리지 내부 표면에 깊이 새겨진 선레이 패턴은 시계 회전 시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오리지널 리베르소 디자인을 계승한 앞면 다이얼의 시간은 12시 방향의 더블 인덱스를 포함한 직선 인덱스로 표시됩니다. 각면 처리한 형태는 래커 처리된 표면의 풍부한 버건디 레드에 시각적 깊이를 더하고, 도피네 핸즈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6시 방향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의 원형 트랙은 다이얼 및 케이스의 기하학적 라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뒷면 다이얼 디자인은 대조적인 장식 마감이 돋보이는 원과 직선 라인 사이에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클루드 파리 기요세의 점을 찍은 듯한 텍스처는 중앙의 시간 디스플레이 및 낮/밤 인디케이터에 있는 오팔린 마감의 작은 원과 대비됩니다.

핑크 골드 케이스의 따뜻한 색감으로 균형을 이룬 두 개의 다이얼은 투톤 스트랩으로 더욱 유니크한 매력이 더해집니다. 캔버스 및 가죽으로 제작된 여름용 폴로 부츠에서 영감을 얻은 까사 파글리아노는 코도반 가죽과 캔버스 소재의 새로운 스트랩을 수작업 커팅 및 스티칭으로 완성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는 190 피스로 출시되며 부티크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파글리아노

크기: 47 x 28.3mm x 10.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54A/2, 시간당 진동수: 21,600

기능: 앞면: 시, 분, 스몰 세컨즈. 뒷면: 세컨드 타임존, 24시간 낮/밤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2시간

케이스: 18K 핑크 골드



다이얼: 앞면: 버건디 레드 래커, 골드 애플리케 아워 마커, 도피네 핸즈 뒷면: 부드러운 실버 그레이 클루드 파리 기요세, 골드 애플리케 아워 마커, 도피네 핸즈

스트랩: 까사 파글리아노에서 디자인 및 수작업으로 완성한 투톤 코도반 가죽 및 캔버스 스트랩, 18K 핑크 골드 핀 버클

방수: 3 바(bar)

제품 번호: Q398256J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시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과 인그레이빙 또는 젬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2021년,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